



ART IN THE OFFICE

HnA PARTNERS EXHIBITION by HnART

2016.5.24 - 2016.7.24

Lullaby
For Blind

ART IN THE OFFICE



눈을 감는다. 그리고 생각한다. 또 다른 세상을.
먹먹한 어둠 속, 하지만 햇살처럼 반짝이는 한 줄기 빛도 보인다.
어디선가 “걱정 마. 괜찮아”라고 다정한 자장가 소리가 들린다.
소복소복 따뜻하게 들리는 자장노래는 피해 갈 수 없는 거대하고
거친 세상 속에서 달콤한 일상으로 끌어당겨 안아준다. 반대로
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순간이 있음을 깨닫게
해준다.

전시 제목인 <Lullaby for Blind>는 스스로 보는 것을
포기하거나 볼 기회를 만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작가의
자장노래로 여러 의미로 “볼 수 없는 상태”를 의미한다.
장재혁의 자장노래는 양극으로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를 담고 있다.
‘물라비(자장가)’로 이름 붙여진 요정들 안에는 ‘어둠과 밝음,
절망과 희망, 부패와 청렴, 추함과 아름다움’과 같은 상반된
감정들이 담겨있다. 범위는 개인일 수도, 집단, 사회, 더 나아가
국가와 종교 혹은 서로 다른 사상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. 작가는
이 극단의 것들을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검은 잿빛과 그 사이에서
뻗어 나온 빛의 색으로 만들었다.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대비되는
불균형적 신체로 이 역설된 상황들을 표현했다.

두 번째 ART IN THE OFFICE의 <Lullaby for Blind>는 열린
결말을 지향한다. 감상을 돕기 위한 작가의 표현과 기획자의
해석의 자리가 더 커지길 바란다. 대신 한 번쯤 눈을 감고
저편의 세상을 떠 올려보길 바란다. 그리고 체험을 통한 공감이
더 크길 바란다.

장재혁 | Janh Jang

기간 2016. 5. 24(화) ~ 2016. 7. 24(일)
장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91길 10 동희빌딩 2,3층
주최 (주)에이치엔에이파트너즈
기획 (주)에이치엔아트